

지역 상장사 장사 잘했네... 영업익 3조7843억

ECONOMY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 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작년 실적 발표

매출 6.28% 증가... 한전 5조8209억 ↑

보해양조·남화산업 등 5개사 흑자 전환

한국전력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며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실적' 발표 자료에 따

르면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20개사 등 32개 결산법인의 매출액은 101조3764억 7100만원으로 전년(95조3868억6000만원) 대비 6.28% (5조9896억1100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5조5965억2100만원

에서 지난해 3조7843억9400만원으로 9조7496억400만원 증가해 흑자 전환했다.

순이익은 전년 -2조9480억8800만원에서 1조2151억4200만원으로 4조1632억3000만원 늘어 흑자 전환했다.

우선 지역 전체 매출액의 90.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매출액은 91조6465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8% (5조8209억8900만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6조5039억1800만원에서 9조6705억7600만원 증가한 3조1666억5800

만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순이익은 전년 -3조2492억3300만원에서 8293억3900만원으로 늘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매출액은 9조7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1686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 (6177억원)과 순이익 (3858억원)은 전년 보다 14.67% (790억원), 28.11% (847억원) 각각 늘었다.

17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거둔 가운데 한전, 보해양조, 대우에이텍, 남화산업, 박셀바이오 등 5개사가 흑자 전환했다.

10개사는 적자가 지속됐으며 DSR제강과 금호건설 등 5개사는 적자로 돌아섰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12개사의 매출 (100조6021억원)은 6.39% (6조 406억원) 늘었고, 영업이익 (3조 8056억원)과 순이익 (1조2604억원)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코스닥시장 매출액은 7743억원으로 전년 대비 6.18% (510억원) 감소했으나 남화토건 등이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 (-212억원)과 순이익 (-453억원) 적자는 전년 대비 축소됐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 청렴윤리경영 실천서약

한국전력은 전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사회적 통념을 포함하는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경영방식으로,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법·규칙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경영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국민의 눈높이와 대내외 청렴윤리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감사실에서 수행하던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로 이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한전 본사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시행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다졌다.

또 '청렴윤리 자율실천 서약'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기아 오토랜드광주, 청소년 응원 '챌린지'

시교육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6000만원 전달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14일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재능 육성을 위한 '2025 기아챌린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챌린지'는 기아 오토랜드광주가 2014년부터 12년째 후원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광주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고 있다.

문재웅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은 이날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변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장에게 후원금 1억 60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기아챌린지 사업은 기아챌린지콘서트, 퓨처챌린지, 초록빛디딤학교, 과학

체험교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콘서트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맨토 강연 및 문화예술 콘서트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6개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퓨처챌린지는 교육청과 구청을 통해 발굴된 문화 예술인재 8명에게 후원금을 지원해 성장 과정을 돕는다.

초록빛디딤학교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의 사회적 및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과학 체험교실은 국립광주과학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초청해 미래 사회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14일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재능 육성을 위한 '2025 기아챌린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순조

50개 기업에 196명 청년 매칭... 직무역량 강화 중점

광주상공회의소는 베스트인 광주지사 (대표 이미란)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이 기업에 출근해 직접 과업이나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로 선정돼 운영기관을 지원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베스트인 광주지사는 지역 인턴형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베스트인 광주지사는 지난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으며 사업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 3월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된 이후 50개 기업에 196명의 청년을 매칭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인턴형 사전 직무교육은 탄탄한 커리큘럼과 가상진 구성으로 직무역량 강화가 가능하며, 기초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직무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사전직무교육 수료자에 한해 오는 21일부터 12주~20주간 인턴형 일경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062-350-5896) 또는 베스트인 광주지사 (062-716-3239)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김우환 광주조달청장, 유망 중기 휴안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은 14일 민생현장 소통을 위해 전남 담양군 무장농공단지에 소재한 유망 중소기업인 휴안주식회사(대표 이흥선)를 찾아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휴안주식회사는 광주시 유망 중소기업(자립형)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품질경영인증시스템 등 검증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디자인형 울타리, 옥외용 벤치, 조경시설물 등을 전

문적으로 생산·납품하고 있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은 "열입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리셋하고, 공공조달길잡이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Sky is unlimited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항공 특성화 대학

초당대학교

www.cdu.ac.kr

항공특성화 대학

-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 항공모빌리티학과
- 항공관광서비스학과

간이대학

-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찾아오면만나

- 스포츠경기지도학과
- 뷰티디자인학과
-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 군사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소방행정학과
- 의약관리학과

글로벌비즈니스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 글로벌실버케어학과
- 글로벌조선학과
-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 국제학과

글로벌자율전공

- 글로벌자율전공학과